



特級Ⅱ 問題紙 (200문항, 시험시간 100분)

(社)韓國語文會 주관 · 韓國漢字能力檢定會 시행 / 第38回 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
시험일자 : 2008. 02. 16. / * 문제지와 답안지는 함께 제출하시오.

[問 1-50] 다음 漢字語의 讀音을 쓰시오.

- [1] 藜藿 [2] 沾濡 [3] 吠堯 [4] 窩頓
- [5] 韜鈴 [6] 獺祭 [7] 咀嚼 [8] 翹楚
- [9] 熾灼 [10] 梭投 [11] 恤辜 [12] 譎獮
- [13] 傲兀 [14] 芟斫 [15] 摺拉 [16] 鹵莽
- [17] 轢蹙 [18] 枷囚 [19] 驕倨 [20] 尊羹
- [21] 廐騶 [22] 愷悌 [23] 嵌竇 [24] 饑飽
- [25] 啖嘗 [26] 屎尿 [27] 狡猾 [28] 顧盼
- [29] 麾鉞 [30] 剔抉 [31] 狎褻 [32] 綏宥
- [33] 瀚漱 [34] 虧紊 [35] 愆兢 [36] 愿慤
- [37] 幡幢 [38] 絳裙 [39] 休咎 [40] 遐邇
- [41] 嫩芽 [42] 枏梓 [43] 牝牡 [44] 恬謐
- [45] 緬邈 [46] 芻頸 [47] 滂沛 [48] 箝制
- [49] 嬋娟 [50] 咨詢

[問 51-55] 위 漢字語 [1]-[5]를 우리말로 옮기시오.(단, 訓이 그대로 뜻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訓을 나열하는 풀이는 인정하지 않음)

- [51] 藜藿 [52] 沾濡 [53] 吠堯
- [54] 窩頓 [55] 韜鈴

[問 56-60] 위 漢字語 [6]-[10]의 轉義[字義대로가 아닌 뜻]를 쓰시오.

例 : 矛盾 [轉義] 앞뒤가 맞지 않음

- [56] 獺祭 [57] 咀嚼 [58] 翹楚
- [59] 熾灼 [60] 梭投

[問 61-65] 위 漢字語 [11]-[15]와 뜻이 가장 비슷한 漢字語를 [16]-[50]에서 찾아 번호로 답하시오.

- [61] 恤辜 [62] 譎獮 [63] 傲兀
- [64] 芟斫 [65] 摺拉

[問 66-70] 위 漢字語 [22]~[50] 가운데서, 서로 상대되는 뜻을 지닌 글자끼리 結合된 것[得失... 등과 같이]을 5개 찾아 그 번호로 답하시오.

[問 71-100] 다음 漢字의 訓·음을 쓰시오.

- [71] 孜 [72] 懿 [73] 藕 [74] 睨
- [75] 穉 [76] 璃 [77] 氓 [78] 亶
- [79] 榭 [80] 昕 [81] 畛 [82] 紵
- [83] 諡 [84] 餃 [85] 侘 [86] 啣
- [87] 朶 [88] 鎌 [89] 綢 [90] 佶
- [91] 櫂 [92] 摹 [93] 糝 [94] 矜
- [95] 峻 [96] 沆 [97] 熬 [98] 魑
- [99] 眸 [100] 瞿

[問 101-110] 위 漢字 [71]-[80]의 部首를 쓰시오.

<계속>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- 영산강은 걸핏하면 범람^[111]하여 인근^[112]을 물들였다. 하구언이 막히고 뱃길 기능이 끊긴 1989년까지도 수위^[113]측정소로서의 기능이 이어졌다. 당시에는 등대^[114] 안에 수위표시 그래프기도 설치되어 있었다. 지금은 작은 등명기만 남아서 당시를 웅변^[115]해준다. 범람을 막기 위하여 영산포 둑을 높게 축성^[116]하면서 등대는 낮게 내려갔고 선창도 사라졌기에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. (주강현, 『등대』, 생각의 나무, 2007)
- 『세종실록』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국왕 세종이 직면^[117]해야 했던 무수한 도전^[118]과 대내외적 시련이다. 지금이야 그 시대를 ‘왕조의 전성기’다, ‘태평성대’다 하고 말하지만, 실록을 들여다보면 하루도 위기^[119] 아닌 때가 없었고, 한 가지 일도 순탄하게 이뤄진 경우^[120]가 없었다. 그 당시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야인들은 “국경과 해안^[121]을 제멋대로 침략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^[122]하고,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 고아와 과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”이 연례행사처럼 거듭되었다. 뿐만 아니라 환관 출신 명나라 사신들의 끝없는 뇌물 요구와, 몽골족 정벌^[123]을 위한 황제의 파병 요청과 말 2만 필 요구 사건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. (박현모, 『세종,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』, 푸른역사, 2007)
- 유학^[124]과 자유주의는 해방 이후 현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

등^[125]의 근본적인 구도를 상징^[126]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유적 요소들이다. 이것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일관되게 걸어온 방향을 감안할 때 금방 그 맥락^[127]이 드러난다. 식민지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, 이 시기 한국 사회가 꾸준히 다가서고자 한 것은 서구^[128]였으며, 그를 위해 시종일관 벗어나고자 한 굴레는 전통이었다.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언제나 서구로 상징되는 풍요와 진보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정표였던 반면, 유학은 빈곤^[129]과 수구^[130]를 상징하는 전통이라는 가난한 집안의 적자였다. (임홍빈 외, 『새로운 공적합리성의 모색』, 철학과현실사, 2005)

- 우리가 수도원장에게 베렝가리오의 시신^[131]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이야기, 성무 공과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퍼져 수도원 전체가 벌집 쑤신 듯했다는 이야기, 수도사들의 면면에는 공포^[132]와 슬픔과 당혹^[133]의 그림자가 엮여있고, 불목하니들은 성호^[134]를 그으면서 축귀^[135]하느라 주문을 외고 다니더라는 이야기까지 조목조목하지 않겠다. 나는 그날의 조과 성무가 정례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어쨌는지, 또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누구누구가 거기에 참석했는지 알지 못한다. 나는 윌리엄 수도사와 세베리노의 뒤만 따라다녔다. 세베리노는 베렝가리오의 시신을 수습^[136]하여 시약소 탁자에다 놓혀 둔 참이었다. (움베르토 에코 지음, 이윤기 옮김, 『장미의 이름』, 열린 책들, 2000년 신판 1쇄)

<계속>

- 우리 과학소설의 역사를 짚어보면, 애국계몽기에 질 베른의 원작을 번안^[137]한 이해조의 『철세계』가 간행된 이래 해방 전까지는 몇몇 번안과 번역 작품이 있었을 뿐 창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. 좀 더 연구가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면 과학소설의 범주^[138]에서 이야기할 만한 작품들이 발견될지 모르지만, 과학소설 창작과 번역은 6·25전쟁이 끝난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. (김이구, 『어린이문학을 보는 시각』, 창비, 2005)
- 절정^[139]에 가까울수록 백국채 꽃키는 점점 소모된다.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 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기웃 내다본다. 화문^[140]처럼 판박힌다.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^[141] 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팔월 한 철엔 흠어진 성진처럼 난만^[142]하다.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커든다.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. 나는 여기서 기진^[143]했다. (정지용, 「白鹿潭」)
- 취업 경쟁^[144]이 치열해지고 학력과 성적이 인플레이되면서 변별^[145]력이 떨어지자 채용담당자들이 당락을 가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. 올해 새로운 채용^[146] 코드로 부각^[147]한 것이 프레젠테이션(PT)이다. 그동안 영어 실력의 가늠자 구실을 했던 토익과 토플 점수는 서류 전형에 의한 숫자에 불과하고 영어면접·토론 등 실용영어가 중시되고 있다. (『매일경제』 2007년 12월 1일)

- 근대 서양의학에서 질병^[148]은 몸의 신체적 변화를, 병환은 그런 변화에 대한 몸의 경험을 일컫는다. 손상된 발목 인대와 바이러스에 의한 목의 염증^[149]은 질목이고, 발목의 통증과 그로 인한 결근^[150] 그리고 심한 기침과 취소된 데이트는 병환에 속한다. 질병은 몸에 나타나는 객관적 사실이고, 병환은 그것에 대한 몸의 주관적 반응인 셈이다. (강신익, 『몸의 역사, 몸의 문화』, 휴머니스트, 2007)

[問 111-150] 윗글 밑줄 그은 漢字語를 漢字[正字]로 쓰시오.

[問 151-155] 윗글 밑줄 그은 漢字語 [111-140] 가운데에서 첫소리가 ‘긴소리’인 것 5개를 가려 그 번호를 쓰시오.

[問 156-160] 다음에서 첫소리가 ‘긴소리’인 것을 그 번호로 답하시오.

[156] 가 這番 나 孱弱 다 軫念 라 枳殼

[157] 가 州界 나 迷夢 다 瑪瑙 라 龕室

[158] 가 涅槃 나 殮襲 다 鸚鵡 라 槌鑿

[159] 가 烽燧 나 膺懲 다 嵯峨 라 伶人

[160] 가 荏苒 나 瀛洲 다 塼塔 라 驟署

<계속>

[問 161-170] 다음 밑줄 친 同音異義語를 구별하여 漢字[正字]로 쓰시오.

- 시계 바늘의 지속_[161] 상태를 지속_[162]해서 지켜보아야 하겠다.
- 남다른 상고_[163]의 정신에서 옛 문물을 상고_[164]하는 분들이 많다.
- 이것을 제대로 이행_[165]하여야 다음 단계로 이행_[166]할 수 있습니다.
- 산란_[167]을 끝내고 죽은 연어들이 산란_[168]해 있다.
- 무덤 앞 비명_[169]에 비명_[170]으로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뜻이 절절하다.

[問 171-175] 다음 漢字의 略字는 正字로, 正字는 略字로 쓰시오.

- [171] 證 [172] 賢 [173] 联
[174] 欸 [175] 兇

[問 176-183] 類義(같은 뜻)字로 結合된 漢字語가 되도록[176-180], 類義語로 짝이 되도록[180-183] () 안에 漢字를 쓰시오.

- [176] () 寔
[177] () 碍
[178] 敦()
[179] () 毅
[180] 梗()
[181] 金蘭() ↔ 魚水親
[182] () 梁之器 ↔ 干城之材
[183] () 斧作針 ↔ 積土成山

[問 184-190] 다음 () 안에 反義語를 쓰시오.

- [184] 開放 ↔ ()
[185] 儉素 ↔ ()
[186] 唐慌 ↔ ()
[187] 稚拙 ↔ ()
[188] 退嬰 ↔ ()
[189] 詰難 ↔ ()
[190] 陳腐 ↔ ()

[問 191-200] 다음 <例>의 뜻을 참고하여 아래의 四字成語를 完成하시오.

<例>

- 쓸모없어 버려짐.
 - 덩달아 그렇다고 함.
 - 함부로 말함.
 - 허물을 들춤.
 -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.
 - 확실하지 못함.
 - 구차한 모습.
 - 너무도 다급함.
 - 무모함.
 -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소리침.
 - 기빠서 뒸.
- (*순서대로가 아님)

- [191] 阿()() 喚
[192] 曖昧() 糊
[193] 矮人()()
[194] 遵() 時晦
[195] ()() 冬扇
[196] () 袍() 笠
[197] () 呼雀()
[198] () 豎說話
[199] 暴()() 河
[200] () 毛() 疵

수험번호 □□□-□□-□□□□

성명 □□□□□

주민등록번호 □□□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

※ 유성 싸인펜, 붉은색 필기구 사용 불가.

※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고, 정답 칸 안에만 쓰십시오.
글씨가 채점란으로 들어오면 오답처리가 됩니다.

제38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Ⅱ 답안지(1)

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
번호	정답	1검	2검	번호	정답	1검	2검	번호	정답	1검	2검
1	여곽			31	압설			61	[32] 綏宥		
2	첨유			32	수유			62	[27] 狡猾		
3	폐요			33	한수			63	[19] 驕倨		
4	와돈			34	휴문			64	[30] 剔抉		
5	도검			35	종궁			65	[48] 箝制		
6	달제			36	원각			66	[24] 饑飽		
7	저작			37	번당			67	[26] 屎尿		
8	교초			38	강군			68	[39] 休咎		
9	치작			39	휴구			69	[40] 遐邇		
10	사투			40	하이			70	[43] 牝牡		
11	홀고			41	눈아			71	부지런할 자		
12	홀회			42	남재			72	아름다울 의		
13	오울			43	빈모			73	연뿌리 우		
14	삼작			44	염밀			74	밝을 환		
15	접랍			45	면막			75	어릴 치		
16	노망			46	문경			76	유리 리		
17	역축			47	방패			77	백성 맹		
18	가수			48	겸제			78	진실로 단		
19	교거			49	선연			79	문지방 곤		
20	순갱			50	자순			80	해돋을 흔		
21	구추			51	변변치 못한 음식			81	발두렁 진		
22	개제			52	젓음, 젓어둡			82	모시 저		
23	감두			53	주인 아닌 사람에게 짓음, 주인에게만 충성함.			83	빙그레할 익,시호 시		
24	기포			54	숙소 주인이 장물을 말아 둠			84	교자 교		
25	담상			55	병법			85	자랑할 차		
26	시노			56	참고서적을 늘어놓음			86	재갈 함		
27	교활			57	글을 음미함			87	꽃송이 타		
28	고반			58	가장 뛰어난 인물			88	낫 겸		
29	휘월			59	세력이 강함			89	뻑뻑할 주		
30	척결			60	세월이 빠름			90	바를 길		
감독위원		채점위원(1)		채점위원(2)		채점위원(3)					
(서명)		(특점)	(서명)	(특점)	(서명)	(특점)	(서명)	(특점)	(서명)		

※ 본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글씨를 칸 안에 또박또박 쓰십시오.

제38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Ⅱ 답안지(2)

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
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
91	상앗대 도			128	西歐			165	履行		
92	모뜰 모			129	貧困			166	移行		
93	쭉정이 비			130	守舊			167	産卵		
94	외숙모 금			131	屍身			168	散亂		
95	농부 준			132	恐怖			169	碑銘		
96	물이름 연			133	當惑			170	非命		
97	북을 오			134	聖號			171	証		
98	폭풍 표			135	逐鬼			172	賢		
99	눈동자 모			136	收拾			173	聯		
100	놀랄 구			137	翻案			174	卒		
101	子			138	範疇			175	貌		
102	心			139	絶頂			176	寂		
103	艸(++)			140	花紋			177	障		
104	日			141	咸鏡道			178	篤		
105	禾			142	爛漫			179	剛		
106	玉			143	氣盡			180	塞		
107	氏			144	競爭			181	契		
108	ㄷ			145	辨別			182	棟		
109	木			146	採用			183	磨		
110	日			147	浮刻			184	閉鎖		
111	汎濫			148	疾病			185	浪費		
112	隣近			149	炎症			186	沈着		
113	水位			150	缺勤			187	洗練(鍊)		
114	燈臺			151	[111] 汎濫 [121] 海岸 [131] 屍身 [134] 聖號 [138] 範疇			188	進取		
115	雄辯			152				189	稱讚		
116	築成			153				190	斬新		
117	直面			154				191	鼻叫		
118	挑戰			155				192	模		
119	危機			156	㉠ 這番			193	看戲(戲)		
120	境遇			157	㉡ 迷夢			194	養		
121	海岸			158	㉢ 殮襲			195	夏爐		
122	殺害			159	㉣ 膺懲			196	弊破		
123	征伐			160	㉤ 驟署			197	歡躍		
124	儒學			161	遲速			198	橫		
125	葛藤			162	持續			199	虎馮		
126	象徵			163	尙古			200	吹覓		
127	脈絡			164	詳考						